

『제56회 방사선취급감독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

지난 10월 8일(월)부터 10월 12일(금)까지 수도권지역의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56회 방사선취급감독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의 원서교부 및 접수를 협회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310명(감독 281명, 특수 29명)이 접수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세중) 주관으로 11월 4일(일)에 충북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8시30분까지 입실하여 1교시 원자력관계법령, 2교시 방사선취급기술, 3교시 방사선장해방어, 4교시 원자력이론(특수: 의학 또는 치의학중 선택)을 치르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목)부터 12월 7일(금)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며 합격여부의 확인은 우리협회(☎02-3411-6494~6) 또는 ARS(대전, 충남지역 700-1903, 기타지역 042-700-1903)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license.kins.re.kr>)를 이용하면 된다.

유 관 기 관 동 정

과학기술부

- 직제 개정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할 과를 신설하고, 일부 실·국간의 업무를 상호 조정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하였다.

이번 직제개정에서 기존의 2실 4국 3관 26과(300명)에서 2실 4국 3관 27과(304명)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원자력국에 원자력방재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원 4인(4급 1, 5급 2, 6급 1)을 증원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 '방사선검출기' 세미나 개최, 내달 20일까지 -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정책 연구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신과학산업 창출을 위한 '방사선검출기' 세미나를 10월11일(목)부터 11월20일(화) 까지 매주 1회씩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방사선 검출기, 가

속기 및 레이저 등 원자력의 활용범위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18일(목) 입자물리 실험용 첨단검출기(고려대 홍성중 교수)
- ▲10월 30일(화) CsI섬광체 성장과 검출기 개발(경기대 권수일 교수)
- ▲11월 8일(목) CR 및 DR방사선 시스템 현황(카톨릭대 이형구 교수)
- ▲11월 15일(목) 방사선 검출기 제작 및 응용기술에 대한 국내외 현황,전망 (KAIST 조규성 교수)
- ▲11월 20일(화) 기체형 영상검출기 현황 및 향후 전망(연세대 조효성 교수)

- 원자력 연구시설 제염해체 국제훈련 개최 -

한국원자력연구소는(소장 張仁順)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연구로 및 소형 원자력시설의 제염(오염물질)해체에 관한 IAEA 지역간 훈련과정을 10월22일(월)부터 11월 2일(금)까지 2주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유리화 장기 실증 시험 성공 -

원자력환경기술원(원장 한태수)은 9월 22일(토) 장기 유리화 실증 시험을 통해 모의 방사성 잡고체 폐기물 및 이온교환수지를 130여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유리화하는데 성공하였다.

9월 17일(월)부터 9월 22일(토)까지 수행한 동 실험에서 총 1.1 톤의 폐기물 (잡고체 폐기물 750 kg 과 이온교환수지 368 kg)을 유리화 하였으며, 폐기물의 부피는 약 1/80으로 감소되었다.

본 장기 실증 시험은 그 동안 중, 단기적으로 수행해온 실증 실험을 바탕으로 상용 설비에서 예상되는 장기간의 폐기물 투입에 따른 유리용탕의 안정적 유지, 연속 운전시 배기체 처리 계통의 성능 보증 및 유도 가열식 저온로를 포함한 주요 설비의 건전성 확인 등 환경기술원에서 개발해온 유리화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음을 총체적으로 입증하게 되었다.

특히, 목표 감용비 80을 달성 후 폐기물 투입과 유리 배출을 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용 설비에서의 운전 모드 등을 검증하였다. 또한 소각로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발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금) 수행한 시험 결과 배기구에서의 농도가 기준치의 0.36 %로 측정되어 배기 기체 처리 성능도 기존의 소각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환경기술원에서는 동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계 기초 자료인 공정자료집(Process Data Book)을 발간하고 이를 상용화 설비 설계에 활용하여, 2004년까지 올진 원자력발전소에 세계 최초로 상용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병원

- 차세대 '감마나이프' 연내 도입 - 병변 추적하며 방사선 조사하는 '사이버나이프' -

최첨단 병변 추적 방사선 치료장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가 올해 국내에 도입된다. 사이버나이프는 환자의 두개골을 뚫어 고정시켜야 하는 감마나이프(직선형 전자가속기)의 단점이 획기적으로 보완된 차세대 감마나이프다.

사이버나이프는 직선형 전자가속기에 자유 이동하는 로버트와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병변 부위를 정확히 추적하여 X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환자가 호흡시 또는 약간의 미동 있을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이버나이프는 두경부 질환에만 국한돼 사용되는 감마나이프와는 달리 폐, 간, 신장 등 움직이는 장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치료는 1회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마취가 필요 없는 등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다. 일본에서 시행된 사이버나이프 치료의 정밀도 오차에 대한 연구에서 감마나이프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으며, 또 분할 조사하는 경우에서도 정위적 방사선 수술 수준의 정밀도를 얻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나이프는 미국, 일본 등 2개국에 총 8대만이 보급돼 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병원의 4개 병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김덕지)는 회사 주소지가, 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으로 종전 지적이 폐지 통합. 작성됨에 따라 10월 4일(목)부터 종전 덕진동 150번지에서 덕진동 493번지로 변경되었다. 우편번호는 예전과 동일하다.



변 경 전	변경사항	변 경 후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150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493번지
305-353	우편번호	좌 동

한국원자력학회

- 「2001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

한국원자력학회 「2001 추계학술발표회」가 10월 25일(목), 26일(금) 양일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공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신재인) 주관으로 개최된 「2001 추계학술발표회」는 “노심핵설계”, “원자로 운전 및 제어”, “원자력 열수력”, “핵연료 및 원자로재료”, “한국원자력학회 청년지부 특별세션” 등 13개 분과에서 국내 원자력계 전문가 6백여명이 참석하여 4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첫날인 10월25일(목)에는 신재인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01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628편)중 엄선된 우수논문(3편)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으며, 「새로운 탄생을 위한 원자력의 도전」이라는 테마아래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방향과 비전(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조청원)”, “대북 경수로사업과 한반도 정세(대북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California Energy Crisis and the Status of the U.S. Nuclear Industry(미국 EPRI 김종현)”, “Climate Change와 원자력의 대응(원자력위원회 위원 이창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용어사전』 발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최수병)는 1996년에 간행되었던 『원자력용어사전』을 대폭 수정·보완한 개정판 『원자력용어사전』을 2001년 11월말경 발간할 예정이다. 본 『원자력용어사전』에는 원자력관련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이론용어 약 6,000 어휘의 해설과 용어약어를 비롯한 기관·단체명, 시스템 명칭 등 4,000여개의 약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전 구입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본 『원자력용어사전』의 구입을 원하면 신청서(www.kaif.or.kr에서 다운)와 함께 도서대금(50,000원)을 원자력산업회의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 : 기획조사실 김학모실장 ☎ 02) 785-2570 /

e-mail : hmkim@kaif.or.kr>

